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권혁용,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

주 일 예 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2월의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찬 양*

예수 우리 왕이여(찬 38)

행복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인도

봉 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찬 214장 4절)

말씀교독

사도행전 28:30-31

특별찬양

하늘의 주

말씀선포

“거침없이 담대하게”

찬양과결단*

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 585)

파송의말씀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3월부터 모임과 사역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2022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주일예배와 새벽기도회 그리고 모임과 삶공부를 정상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1월까지 몰아친 오미크론의 확산은 다시 정지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도 진정세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코비드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코비드 때문에 활동을 중지하고,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은채 살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사회적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도 더 이상 숨죽이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실내마스크는 착용하겠지만, 입구에서 체온 확인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들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사용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배당 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먼저 새벽기도회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요일에만 현장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3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간부터 현장 새벽기도회를 “목금토”로 확대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은 현장으로 오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Zoom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일예배입니다. 주일 영상예배가 2주 연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의심되는 기계를 교체하며 토요일 아침마다 시험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보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100%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모두 현장예배로 나오시기를 강권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는 분이 아니면, 개인적 편이성과 선택으로 영상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알을 깨트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결국 성도들이 모임입니다. 예배는 그 성도들이 한 곳에서, 같은 시간에 공동체를 이루며 드릴 때 예배의 다이나믹이 나타납니다. 또한 4월부터는 2부예배 큐티나눔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 맡은 분들은 사양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공부와 모임입니다. 위원회 모임, 목장 모임, 큐티 특강, 삶공부 등을 시간이 가능한 대로 주일 오후 혹은 다른 날에 진행해 가겠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영적 훈련과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한울림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